

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비 1.4%로 전체 상승률(2.0%)보다 낮은 수준 가격이 상승한 쌀, 사과, 축산물 공급 안정 노력

- 정부양곡 15만톤 단계적 방출 및 수입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관세 인하
- 축산물 할인 지원, 유통 과정 점검 등 소비자 부담 경감 추진
- 원재료 가격 인하분이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도록 업계 협력·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전년비 2.0% 상승)보다 낮은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2월 소비자물가지수(전년비) : 전체 2.0%↑, 농축산물 1.4%↑(농산물 1.4%↓, 축산물 6.0%↑)

농산물은 쌀·사과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전년비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추·무·당근·양배추 등 노지채소는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공급이 원활한 상황이고, 청양고추·상추·파프리카 등 시설채소는 기온이 급격히 하락한 2월에 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최근 작황을 회복하여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격이 상승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15만톤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사과는 계약재배(15천톤) 및 지정출하(3.5천톤) 물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공급하여 햅과일 수확(7월) 전까지 시중 유통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장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크게 하락한 양파는 조생양파 출하 전까지 자조금과 할인지원 예산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한다.

또한, 수출국의 작황 부진과 고환율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수입과일에 대해 2.12일부터 기존 관세율(12~30%) 대신 5%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통관 및 유통과정을 점검하여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생산량 감소와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전년대비 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는 가격이 낮았던 '23년~'24년 농업인이 입식을 줄이면서 '26년 3월 현재 사육마릿수는 지난해 보다 4.1% 감소한 324만 7천 마리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도축가능한 물량도 감소하였다. 여기에 수입소고기도 미국 등 수출국의 생산감소, 환율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당분간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명절 수요가 늘어나면서 2월 가격이 상승하였다. 다만 3월 이후에는 도축 물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와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 규모가 확대되고, 이동 제한 등이 반복되면서 가격이 상승하였다.

농식품부는 자조금과 할인지원 예산을 활용해 돼지고기(20% 내외)와 계란(△1천원/30구) 할인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통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식품·외식은 전년대비 각각 2.1%,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공식품은 고환율 영향 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으나, 설탕·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인하로 추가 인상 움직임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더불어 원재료 가격이 인하되면서 파riba게뜨와 뚜레쥬르가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하는 등 원재료 가격 하락분을 최종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업계도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이다.

* [파riba게뜨, 3.13~] : (빵) 6종 100원~1천원↓, (케이크) 5종 최대 1만원↓ 및 3월 중 가성비 크라상(1천원/개) 출시

[뚜레쥬르 3.12~] : (빵) 16종 100원~1천원↓, (케이크) 1종 최대 1만원↓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가공식품의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원재료 구매자금 지원 등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및 가격 동향 상시 모니터링, 비축·계약 물량 확보 등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농축산물의 가격 결정 구조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식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배민식	(044-201-2681)
		담당자	서기관	김성만	(044-201-2685)
		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044-201-2682)